

2022년
기획연구

Part. 1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기부 트렌드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유럽, 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자 **김성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책임 연구원

김 성 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학력

School of Social Work, Indiana University, Ph.D.

Mandel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MSSA.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주요경력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Monmouth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Research Fellow

Korean Nonprofit and Philanthropy Researchers Network (KNPRN),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연구실적

Kim, S. J., & Jeong, B. (2021). University-based nonprofit and nongovernment education in South Kore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Nonprofit Education and Leadership*, 12 (3), 17-33.

Cai, Q., Okada, A., Jeong, B., & Kim, S. J. (2021). Civil Societ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A Comparative Study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China Review*, 21(1), 107-137.

Lee, L. & Kim, S. J., (2020). The effect of government grants on private giving to East Asian nonprofits: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managers. *Advances in Social Work*, 20(1), 95-113.

Kim, S. J., & Jung, J. K. (2019).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Voluntaristics Review: Brill Research Perspectives*, 4(6), 1-71.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일반 시민들의 기부 행동의 변화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로서 총 9개 나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인용된 설문 조사는 2020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설문 조사에 포함된 나라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독일, 호주, 이스라엘, 한국, 그리고 미국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기존의 기부자들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설문에서 한국 응답자의 80%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조사에 포함된 9개 나라 중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독일(77%), 미국(62.6%), 호주(61%)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의 기부행동의 변화 중 특별한 점은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해당 비율이 다른 비교 대상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22.2%).

코로나19 시기에 한국에서의 높은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는 경제 불황, 자연 재해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평소에 비해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 사람들의 기부 성향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비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도 상대적 우수성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자선적 활동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모범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는 데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코로나19, 기부 참여 변화, 자원봉사 참여 변화, 기부활동 분야, 국제비교

I. 서론

모든 종류의 국가적 재난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위기를 초래한다(CDP, 2021). 특히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 규범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고, 국제 유통망 등 경제 네트워크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모든 공적 사적 영역에 있어서 전례 없는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팔베르그(Paarlberg)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유행은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대규모의 치명적인 재난과 비슷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발생한 어떤 자연재해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하고 있다(Paarlberg et al., 2021).

코로나19와 같은 강력한 전염병의 유행, 전쟁, 자연재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인간은 두 가지 상반되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이익과 편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행동(selfishness)이 증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선적 행위(generosity)이 증가한다. 이기심의 발현은 우리의 생존 본능에 내재되어 있는데, 인간은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기 보존 행동을 촉진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유행은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 내·외부의 구성원에 대한 관대함을 감소시킨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초기 35개국을 대표하는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린 사례를 쉽사리 찾아 볼 수 있다(Fridman et al., 2022).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 19 발생 초기 일부 생필품에 대한 패닉 소비(panic buying)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몇 달 동안 생필품의 공급이 불확실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과 일부 품목에서의 재고량 부족으로 인하여 화장지 또는 마스크 사재기 등 이기주의적 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였다.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의 발현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기주의가 발현된 예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강력한 제한 정책으로 인해 각 개인의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실업률 상승, 농수산물 등 먹거리의 공급 불안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야기된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 세계 각 국가들은 본인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확보에 국가 이기주의가 강력히 작용하였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나

라들에게 백신을 공동 구매/배분하기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의하면 백신이 개발된 2021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가들이 한 해 출시될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의 70%를 독점함으로써, 경제적인 우위에 있지 못한 나라들이 백신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고재원, 2021).

반면 코로나와 같이 공동의 위협에 직면한 경우 시민들은 사회적 결속과 공동의 합리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을 강화한다는 주장도 있다. Zaki(2020)는 “위기 상황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해”라는 연구를 통해 재난은 공동체 의식과 이타주의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 인도양 쓰나미, 2010년 아이티(Haiti) 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등 국제적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 주변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였고, 국제 원조 기관들의 적극적인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개인들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특별 기부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로 이타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실행되었는데,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발표된 연구들에 의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선적 기부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 가이드스타(Guidestar)의 새로운 데이터 자산인 캔디드(Candid)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2021년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기부는 약 10억 달러(\$1 billion)로 추정되며(Gulliver-Gracia et al., 2022), 미국 내 약 490개의 자선 재단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설문에 응답한 재단에서 제공하는 배분사업은 전 년도에 비해 약 11% 증가하였다. Gulliver-Gracia et al.(2022)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내 자선 재단의 2020년 코로나19를 위한 지원금은 약 21억 달러로 추정되고, 2021년에는 총 323개 재단에서 약 15억 달러를 코로나19와 관련된 단체 및 프로그램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Gulliver-Gracia et al., 2022).

미국 최대 자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자선 내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해 기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12월 한 달 간 발생한 기부 총액을 조사한 결과, 2020년 전체 기부 중 약 64%에 해당하는 기부 금액이 12월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2018년 58%, 2019년 5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Gulliver-Gracia et al., 2022). 더 나아가 코로나19의 위험 수위에 따른 기부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에서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2020년 후반까지 자선적 기부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ridman et al.(2022)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한 모든 나라들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이 낮은 시기에서도 자선적 기부는 코로나19의 위험이 없었을 때보다 31.6%나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의 위험이 최고조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자선적 기부가 32.9%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험에 따른 개인 기부에 관한 분석에서도 코로나19 위험의 정도에 상관없이 개인 기부가 1.3~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ridman et al., 2022).

이와 같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선적 기부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코로나19와 자선적 기부에 관한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몇몇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국가의 기부 트렌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부 트렌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부 행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나라의 기부 트렌드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유럽 연합의 일부 국가(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스웨덴), 중동지역 국가(이스라엘), 오세아니아 국가(호주), 북미 국가(미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의 기부 트렌드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기부 트렌드에 관한 선행 연구

본 섹션에서는 앞서 제시한 미국의 코로나19와 기부 행위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 결과 이외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행위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탐색함으로써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기부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한다.

영국의 기부 행동 조사 중 가장 규모가 큰 Charity Aid Foundation(CAF)에서는 2020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영국의 코로나19 관련 기부 행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20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9,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기부 행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다음은 CAF의 2020년 10월 연구에 보고된 내용들이다(CAF, October 2020). CAF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부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경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부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6월 사이 총 기부 금액이 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15%(£800 million)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환자 및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기존의 펀드레이징 이벤트를 통한 기부는 급격히 줄었는데, 예를 들어 런던 마라톤 등을 통한 기금 모금 캠페인은 캠페인 자체가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서 기부 금액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캐나다의 기부 행동은 Sheridan College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대학의 연구소에서는 2021년 4월 약 3,000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기부에 대한 인식 및 기부 행동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Barr, 2021).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약 51%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기부 활동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15.8%는 오히려 기부를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의 기부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28%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68% 이상의 캐나다인은 앞으로도 기부 행위에 변화를 줄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기부 행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미래에 기부를 줄일 확률이 늘릴 확률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부 행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기부를 줄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와 기부 행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 기관들에서 시행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캔디드 데이터와 자선 내비게이터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미국인들 또한 기부 행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Gulliver-Gracia et al., 2022). 본 섹션에서는 미국의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기부 행위에 관한 연구 중 인디애나대학의 필란트로피 스쿨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필란트로피 스쿨에서는 2020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약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기부 행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있었던 2020년 후반 두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기부 행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1).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은 팬데믹 속에서도 기존의 기부 활동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높았으나, 몇몇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기부 의사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의 조사 결과, 2020년 5월과 9월 사이 약 4~6% 정도의 기부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단체와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단

체들에 대한 기부가 집중적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 기빙 USA(2021 Giving USA)에 의하면 2020년 총 개인 기부 중에 사회복지 단체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 금액은 전체 기부의 13%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14%로 증가하였다. 자선 내비게이터(Charity Navigator)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 2018~2019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전체의 23%~24%였는데 반해 2020년에는 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1).

또한 인디애나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내 및 국외 자선 단체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기부(현물/현금 기부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기부)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기부를 한 기부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이슈에 기부한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더 적극적이었으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에서는 2020년 12월 한 달에 이루어지는 연말 기부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급상승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한 해 전체 기부 중 12월 한 달에 이루어진 기부가 2018년에는 전체의 58%, 2019년에는 56%였던 것이, 2020년에는 전체 기부 중 64%가 12월 한 달 간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는 12월달에 일반적으로 기부가 증가하지만,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첫 해 겨울인 2020년 겨울에는 특히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과 기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관하여 기부에 참여한 기부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연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관한 기부에 더욱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기부자일수록 사회 서비스 관련 단체 이외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향이 나이가 많은 기부자보다 더 강하였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대한 기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기부, 크라우드 펀딩,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기부 등 새로운 기부 플랫폼을 이용한 기부가 매우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1).

이 밖에 코로나19와 기부 행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나라에서 시도되었는데, 코로나19 기간 동

안 인도의 기부 행위에 대한 연구(Venkatachalam et al., 2020), 나이지리아의 기부 행위에 대한 연구(Adelabu, 2021), 이슬람 국가의 기부 행위에 대한 연구(Abidin, 2021) 등이 있다.

III. 연구 방법

지난 2020년 1월 미국 인디애나대학 필란트로피 스쿨의 국제 필란트로피 파트 책임자인 파멜라 위프킹(Pamala Wiepking) 교수는 코로나19가 기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하여 국제 자선 행동에 관한 연구팀(Global Generosity Research Team)을 결성하였다. 이 연구 팀에는 전 세계 20개국 50여 명의 필란트로피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팀에서는 조사 주제 및 영역 설정, 설문지 개발, 조사 가능 국가 선정과 같은 연구 방법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20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15개 나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행동에 관한 공통 질문과 각 나라별 고유 질문을 포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공통 질문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행동의 변화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최종 11개 국가에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설문에 참여하여, 11개 국가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행동의 변화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러시아, 호주, 이스라엘, 한국, 그리고 미국의 연구팀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르웨이와 러시아를 제외한 총 9개 나라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부 현황을 정리하였고, 각 나라의 기부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나라의 연구자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보고서에 포함하지 못한 구체적인 기부 행위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시도하였다. 총 5개 나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화상 인터뷰를 실시하였고(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호주, 미국), 나머지 국가의 연구자외는 이메일을 통하여 추가 정보를 취득하였다. 인터뷰는 2022년 3월 ~6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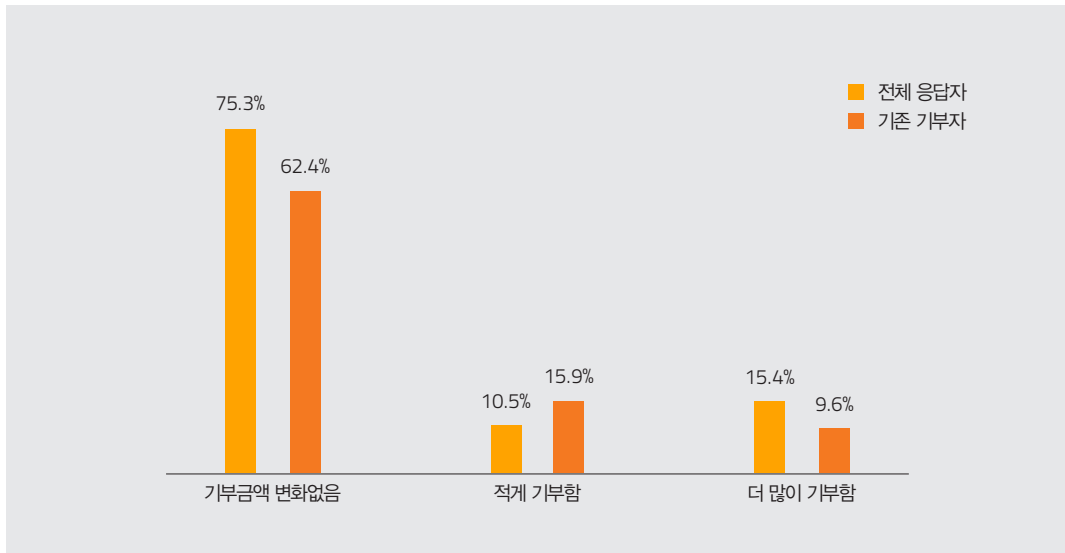
1. 각 나라별 조사 결과 요약



1) 오스트리아(Aust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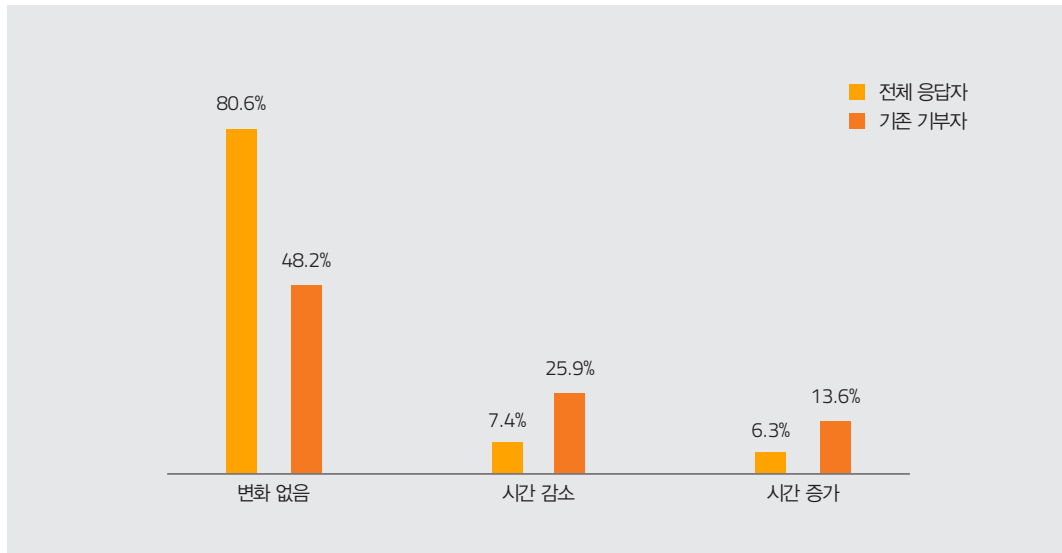
오스트리아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의 변화와 자선적인 행동의 참여 여부에 관한 조사는 2020년 6월~9월 사이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 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최종 응답자 수는 총 1,000명이었으며, 응답자의 49%는 남성, 51%는 여성이었다. 약 60%의 응답자는 파트너와 같은 집에 거주, 14%는 파트너가 있으나 따로 거주하고 있고, 약 26%는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오스트리아인들의 기부 참여 경험과 기존 기부금 지급의 변화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3%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 제공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오히려 전체 응답자 중 15.4%는 기존에 제공하던 기부금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응답자의 10.5%만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기부금을 축소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2019년도에 기부에 참여했던 응답자 중 62.4%는 기부금 지급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9.6%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 지급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15.9%만이 기부금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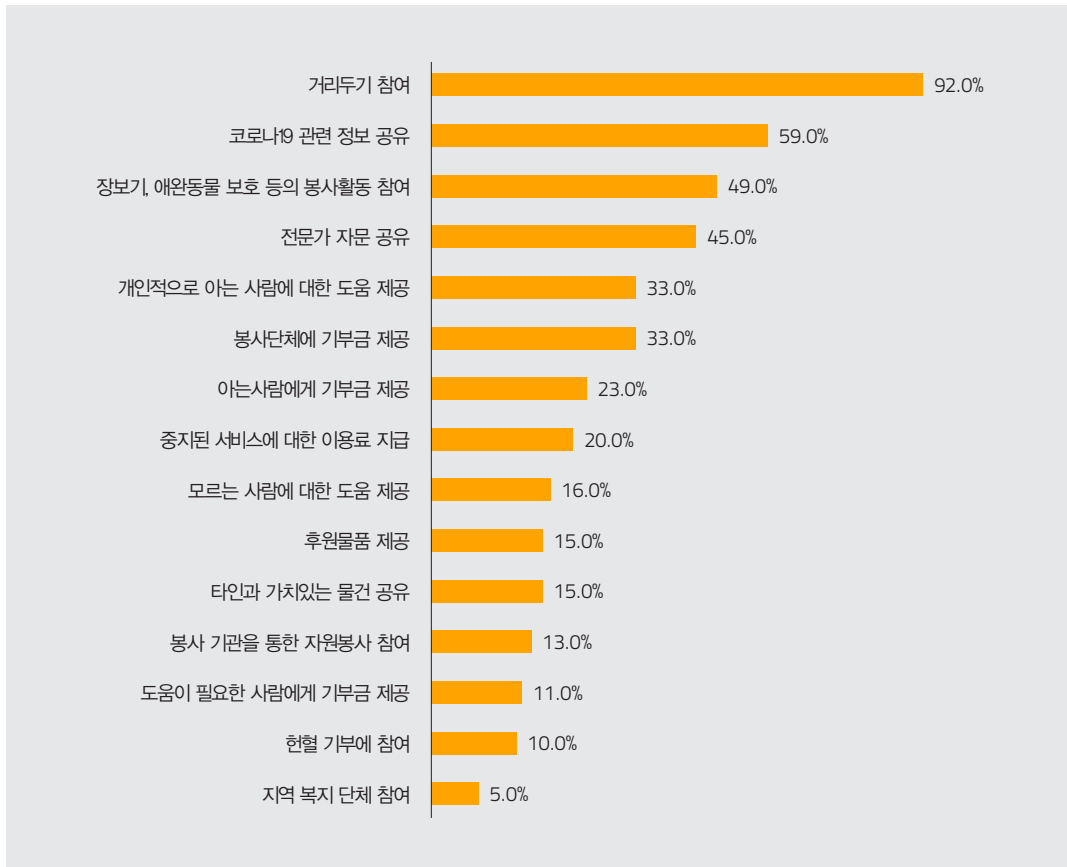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변화 - 오스트리아

[그림 2]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 참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80.6%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도 자원봉사 참여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오히려 전체 응답자의 6.3%는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자원봉사 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4%밖에 없었다. 2019년에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던 응답자 중 48.2%는 봉사 활동의 변화가 없었고, 13.6%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기존에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람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줄인 사람은 25.9%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 참여 변화 - 오스트리아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선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약 92%의 오스트리아 응답자들은 자발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였으며, 약 59%는 신뢰성 있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 활동은 평소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비영리 단체를 통하여 봉사할 기관과 대상을 찾아 봉사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개인적 또는 사회관계망을 이용하여 봉사 대상을 찾아 자원봉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한 경우는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지만,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보기, 애완동물 돌보기 등 개인적으로 봉사 대상자를 찾아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49%나 되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도움을 주거나(33%)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23%), 모르는 사람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거나(16%), 모르는 사람과 가치 있거나 필요한 물품(예,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공유하는(15%) 등의 개별적/직접적 방법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자선적 활동의 일부는 기존에 유료로 이용해 오던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계속 지불한 경우가 전체의 20%나 되었다.



[그림 3]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가족, 친구,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기부 및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오스트리아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방법이 비영리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였다면 코로나19 시기에는 개인적인 경로를 통한 자원봉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개인적인 또는 사회관계망을 통한 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직 30%밖에 되지 않았던 것에 비교해 보면 상당한 변화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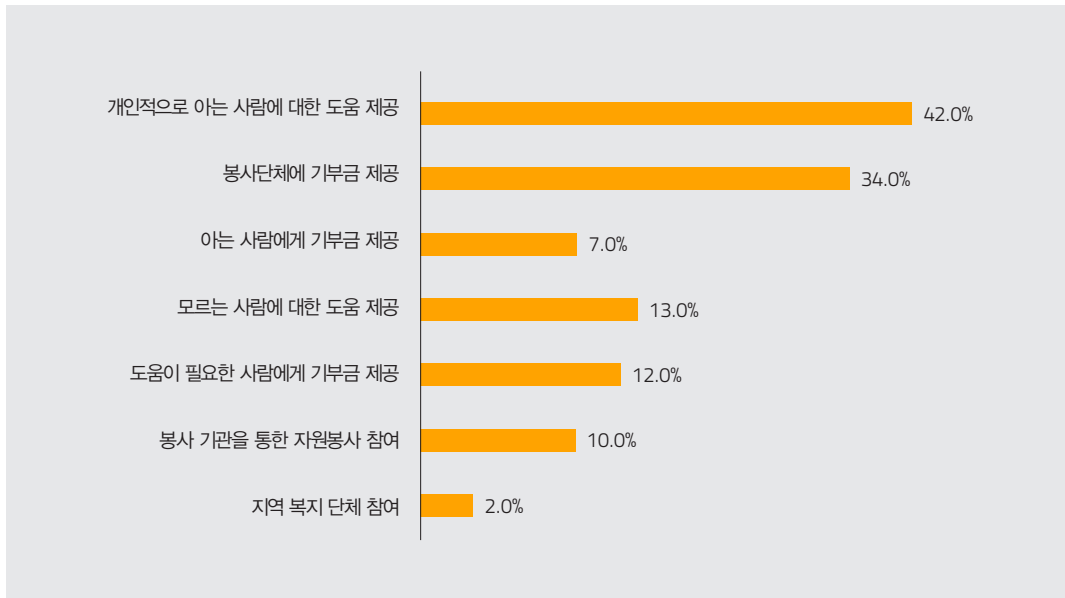
또한 ¾ 이상의 오스트리아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부 및 봉사 활동을 축소 또는 중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히려 기부 및 봉사 활동을 늘린 경우도 있었으며, 기존의 기부 및 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같은 전염병이 확대되더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부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아이슬란드(Ice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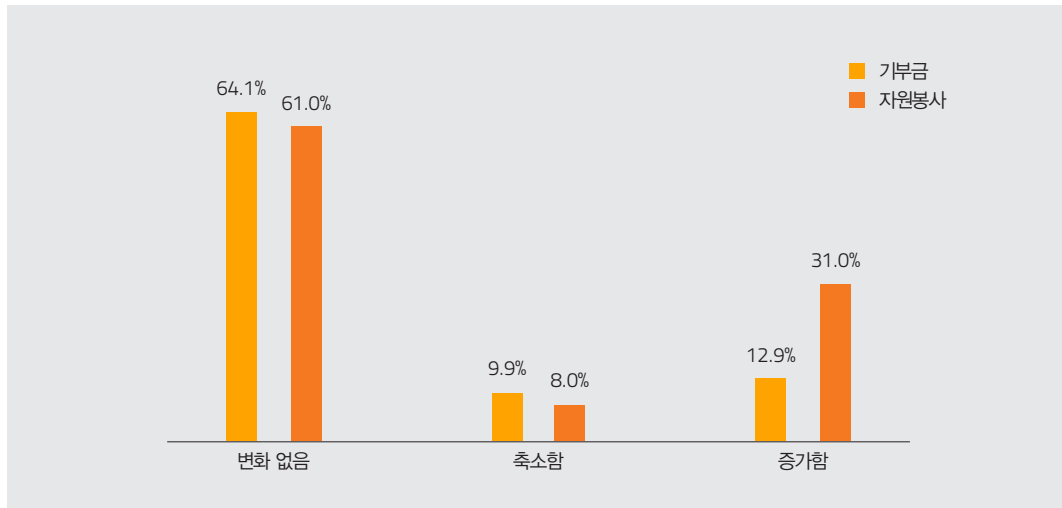
아이슬란드의 연구는 2020년 9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64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49%(315명)은 남자, 51%(329명)는 여자였으며, 58.7%는 기혼자였고, 64.4%가 수도 레이카비크(Reykjavík)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참여한 자선적 활동은 가족/친척/친구 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42%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응답자의 13%밖에 되지 않았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한 경우도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아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였지만 10명 중 0.7명(7%)만이 아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금 제공은 아는 사람보다 도움이 필요한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12%)가 아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슬란드에서는 기부금 제공은 자선단체를 통한 지원이 개별적 지원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응답자의 34%가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금을 제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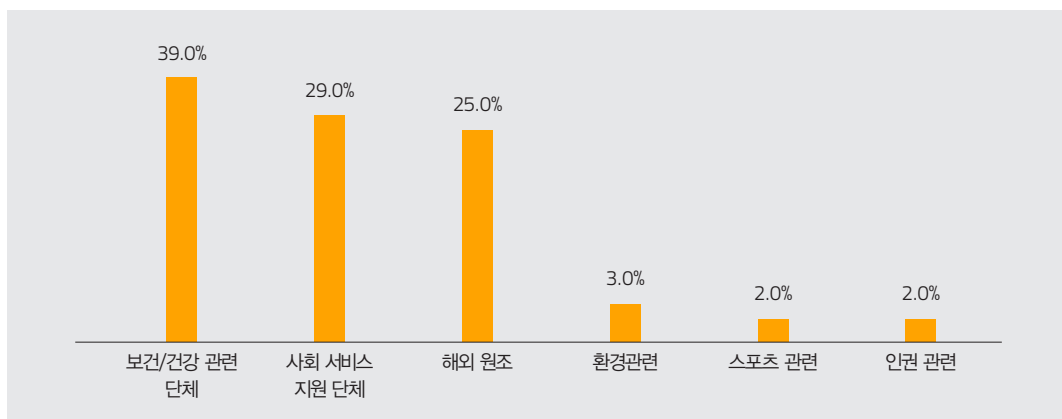
[그림 4]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아이슬란드

[그림 5]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 및 자원봉사 활동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응답자의 64.1%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기존에 제공하던 기부금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61%도 기존에 해오던 자원봉사도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오히려 기부금과 자원봉사를 더욱 확대한 응답자들도 있었는데, 응답자의 13%는 기부를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1%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기부금 제공 보다는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 – 아이슬란드

[그림 6]에서는 기부금 지급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응답자의 39%는 보건 및 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단체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29%),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금 제공(2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지 2%만이 인권 및 정치적 대변자 기능을 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관련(3%), 스포츠나 레저 활동 등을 지원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3%).



[그림 6]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아이슬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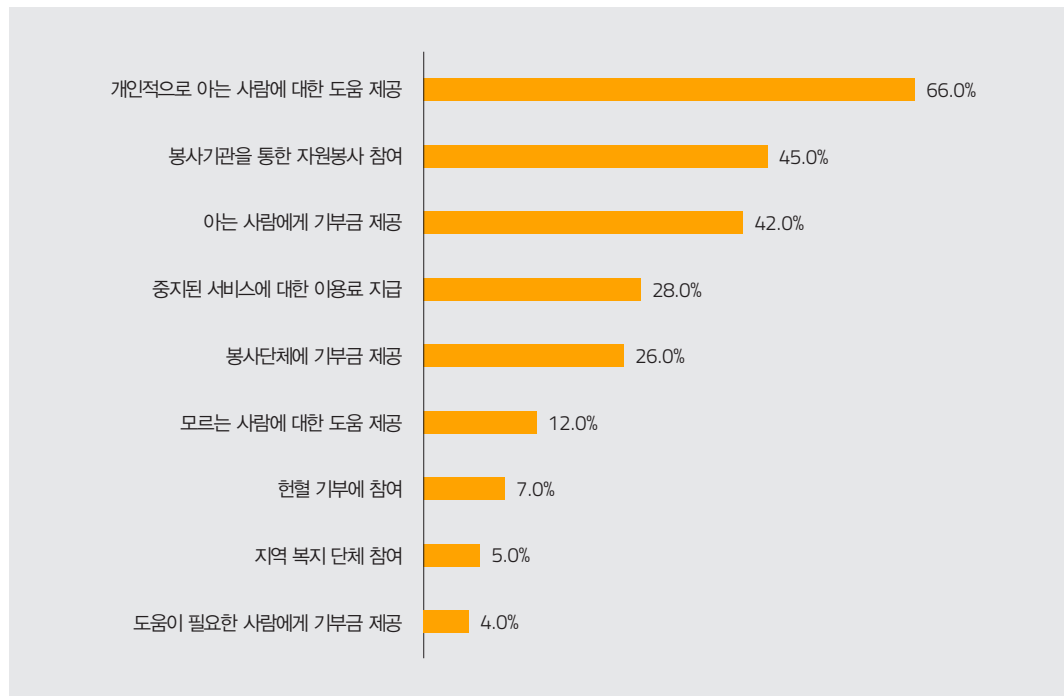


3)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1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1,000명이 참여하였으며, 51%가 남자, 49%가 여자 응답자였다. 36.6%의 응답자가 자녀가 없는 결혼 가정이었으며, 싱글이 32.2%, 자녀가 있는 기혼 가정이 26.4%였다. 설문이 진행될 당시 핀란드에서는 첫 번째 대유행이 지나고 조금 진정된 시기로 하루 30건 이하가 발생하던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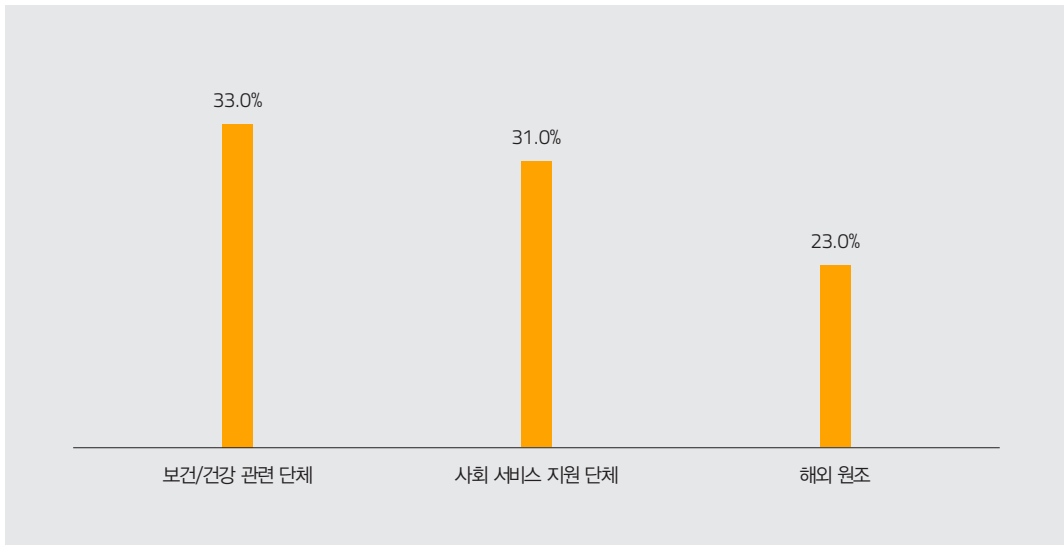
아래 [그림 7]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66%는 코로나19 발생한 이후 가족/친구/친척 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대한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45%의 응답자들은 봉사 기관을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2%의 핀란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26%의 응답자들은 봉사단체를 통해서도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28%의 핀란드 사람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유료 서비스 중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서비스에도 계속해서 요금을 지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핀란드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응답자의 12%만이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금 제공한 경우는 응답자의 4%밖에 되지 않았다. 혈액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의 7%였고, 지역 복지 단체를 통해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전체의 5%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림 7]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핀란드

코로나19 발병 이후 핀란드 국민들이 기부한 기부금의 평균은 26유로~50 유로(3만5천~6만7천 원)였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좀 더 자선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건 및 건강 관련 지원 단체에 대한 기부가 가장 많았으며(33%), 다음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 제공(31%), 해외 원조(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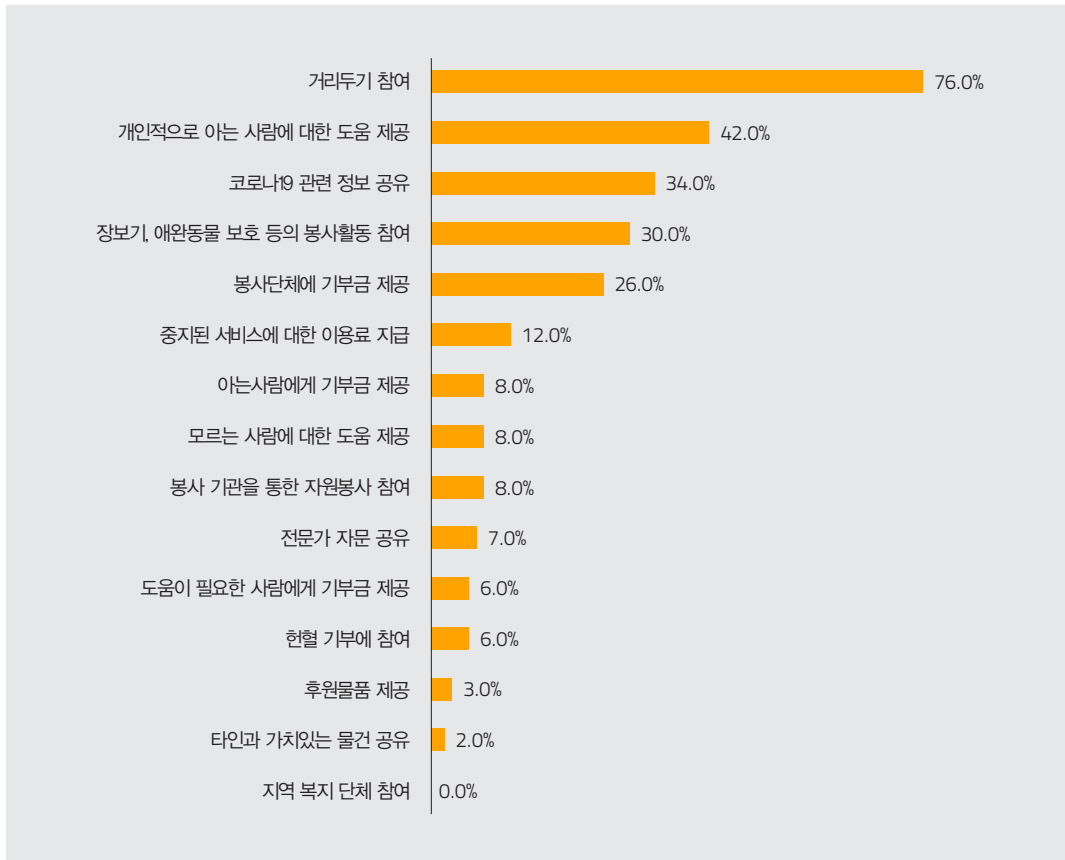
인터뷰를 통해 핀란드의 연구자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시기의 기부 및 봉사 활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핀란드에서는 정부가 거리두기, 집합 금지 등의 조치로 자원봉사 참여에 제약이 있었으며, 자원봉사 참여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축소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의도도 코로나 이전보다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부 및 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 강해졌으며 이는 향후 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강조하였다.



4)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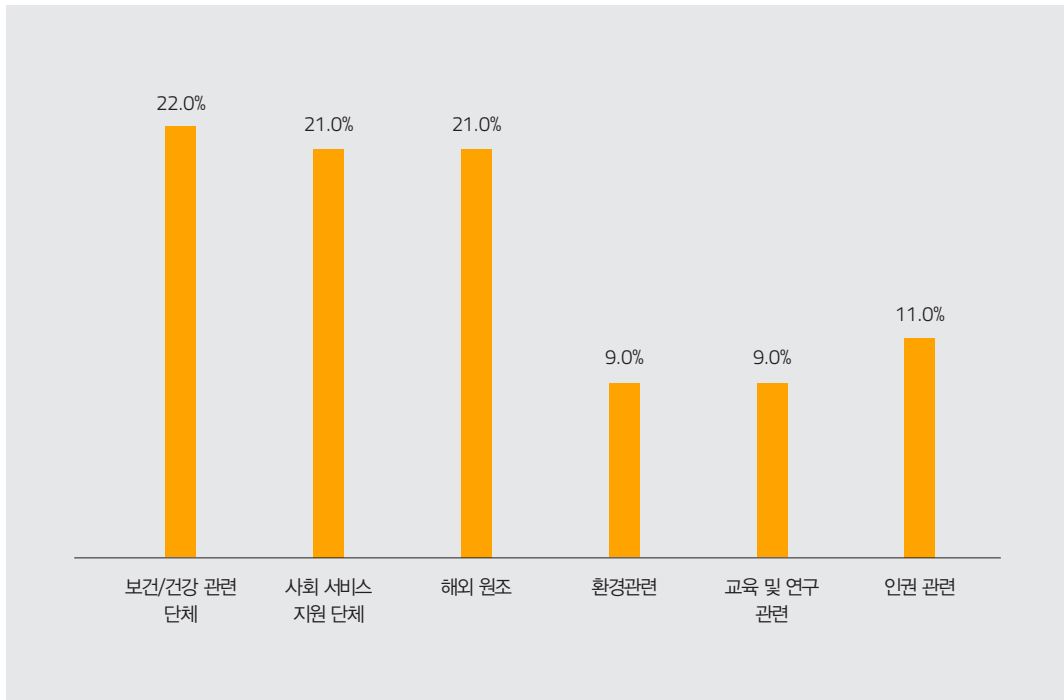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스웨덴에서의 연구는 2020 10월~11월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스웨덴에 거주하는 18세~90세 사이의 성인 남녀 총 1,149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설문에 참석한 응답자 중 46.4%는 남성, 54.6%는 여성이었으며, 최종 응답률은 42%였다.

[그림 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선 관련 활동에 참여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스웨덴에서는 응답자의 76%가 거리두기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인터뷰에서 스웨덴 연구자들은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이 진행되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강력한 국경 폐쇄 등 정부 규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두기 참여율이 아주 낮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42%는 가족/친척/친구 등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34%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30%의 응답자는 장보기/애완동물 산책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 생활에 제약이 있는 개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26%의 응답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유료 서비스에 지속적인 요금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응답자의 12%는 유료 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였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8%였다. 또한 응답자의 8%는 봉사 기관을 통한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스웨덴에서는 혈액 기부에 참여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로 다른 유럽 국가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그림 9]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스웨덴

[그림 10]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급한 기부금의 지급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건 및 건강 관련 비영리 단체에 지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22%), 다음으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21%), 해외 원조(21%) 순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인권 및 사회 정의에 관한 일을 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금 제공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높았는데, 인권 및 사회 정의 관련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는 응답자의 11%였으며, 그 밖에 교육 및 연구 관련 기관(9%), 환경 관련 단체(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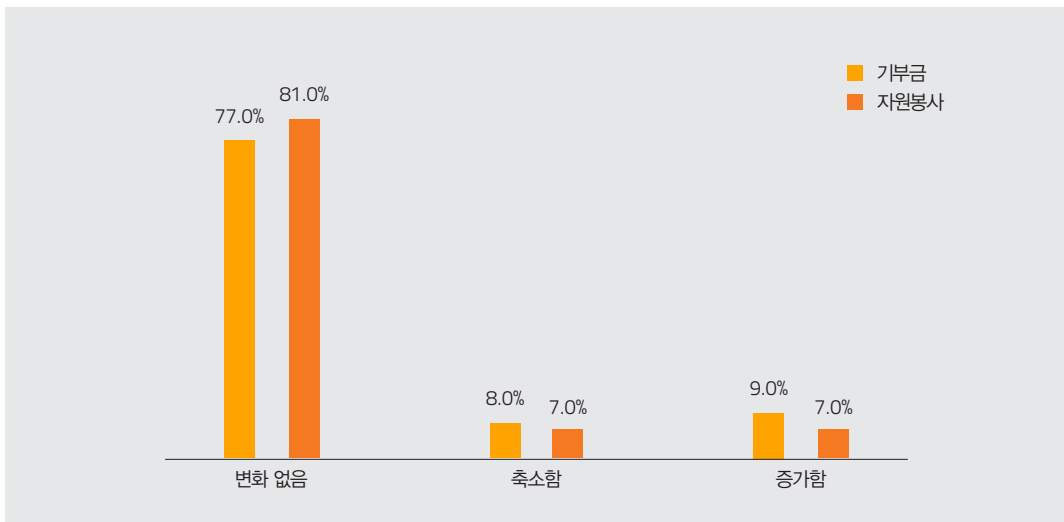
[그림 10]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스웨덴



5)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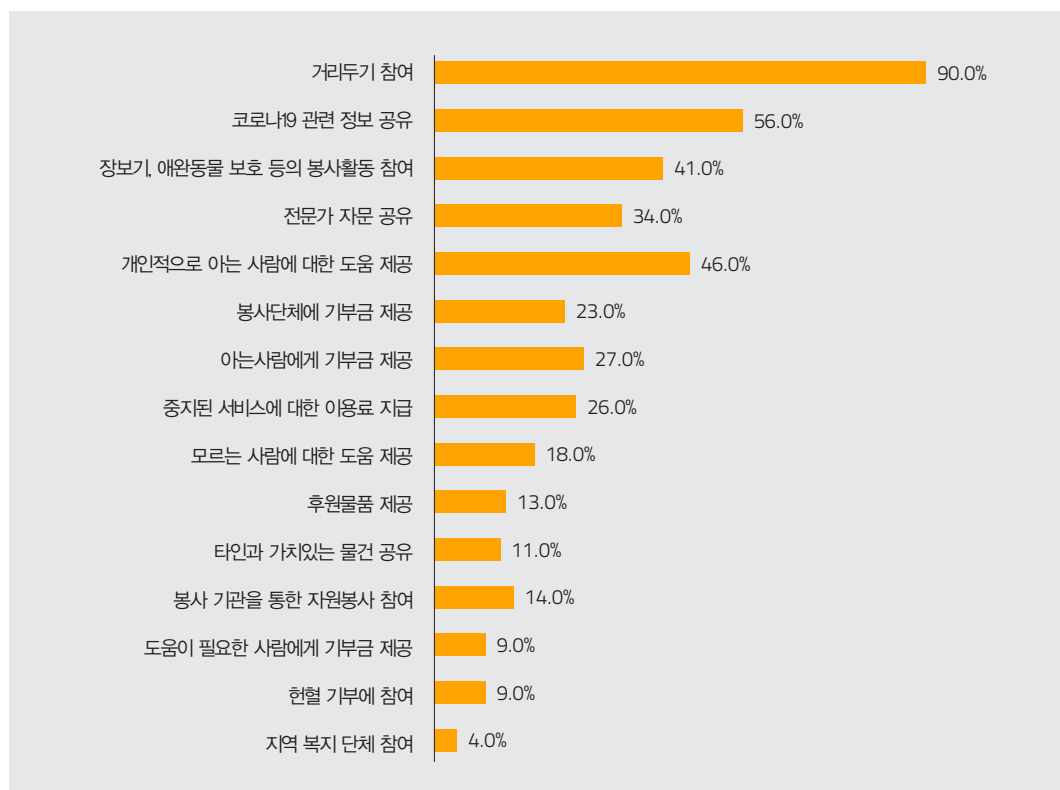
독일의 연구는 2020년 8월3일~20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독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6세 이하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51%는 여성, 49%는 남성이었으며, 0.2%는 기타 성별이었다. 주거 형태에 따른 구별에 의하면 55%는 파트너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트너와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경우 13%, 혼자 사는 경우가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수집할 당시 독일에서는 첫번째 웨이브가 끝난 상태로 3월 중순 비유럽연합 국가 사람들에 대한 국경 폐쇄, 학교 및 유치원 등 교육 기관 폐쇄, 식당·운동 시설 등 생활 이용 시설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거리두기 및 2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후였다.

[그림 11]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를 분석한 결과로, 전체 응답자의 77%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기부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약 8%만이 기부금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응답자의 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를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는 응답자의 총 81%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7%는 오히려 확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7%만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자원봉사 참여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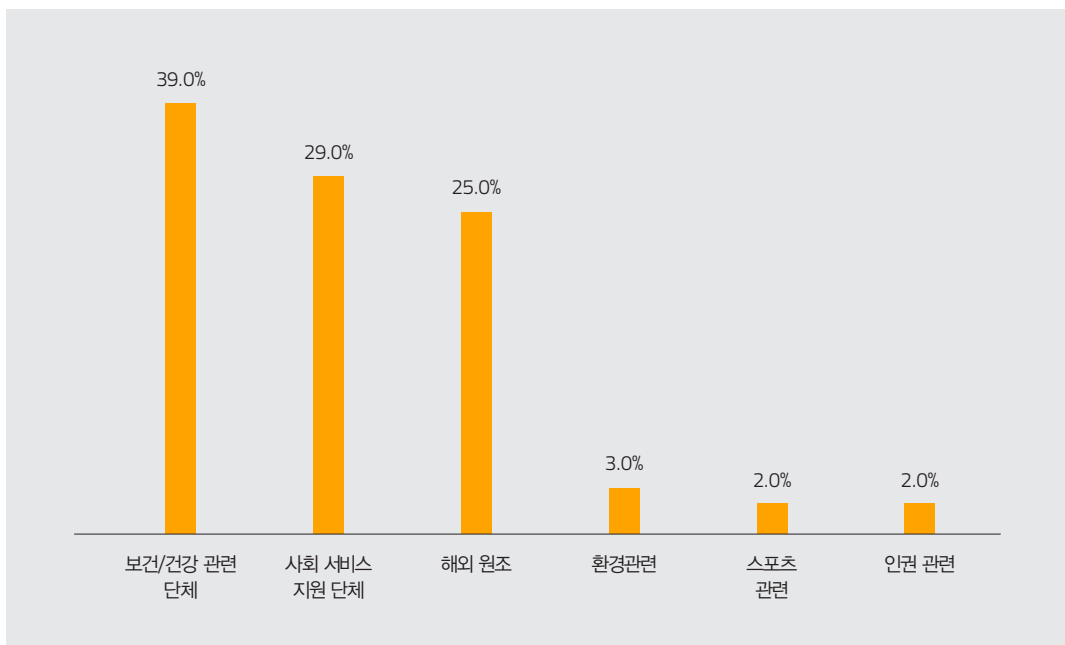
[그림 11]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 - 독일

[그림 12]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자선 활동의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로서, 독일에서는 90%의 응답자가 거리두기 정책에 참여하였으며, 56%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였다. 46%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해 도움을 제공한 적이 있고, 41%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해 장보기 또는 애완동물 보호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34%의 응답자는 코로나19 관련 전문가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였고, 27%는 아는 사람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26%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던 유료 서비스가 중지되었음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23%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 제공(18%)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9%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독일에서는 응답자의 9%가 혈액 기부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다른 유럽 나라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다.



[그림 12]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독일

[그림 13]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제공된 기부금을 지급 분야별로 분석하였으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비영리 단체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39%). 다음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29%), 해외 원조(25%) 기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독일에서는 인권 관련 단체(2%), 환경(3%) 및 여가 관련 단체(2%) 기부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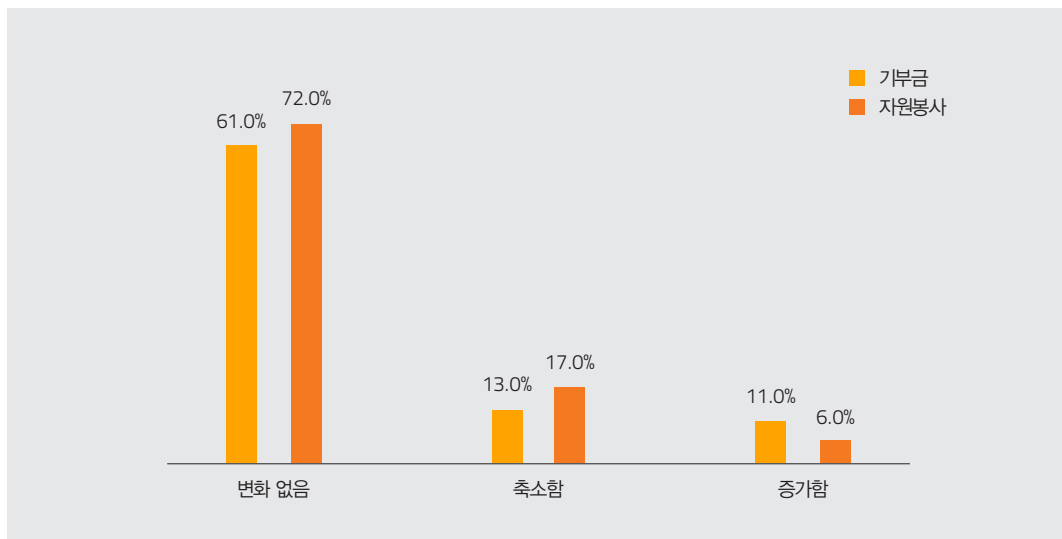


6) 호주

호주의 연구는 2020년 8월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총 1,007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49.2%가 남성이었으며, 49%가 여성, 0.8%가 다른 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4%는 혼자 사는 가구였으며, 27.7%가 18세 미만의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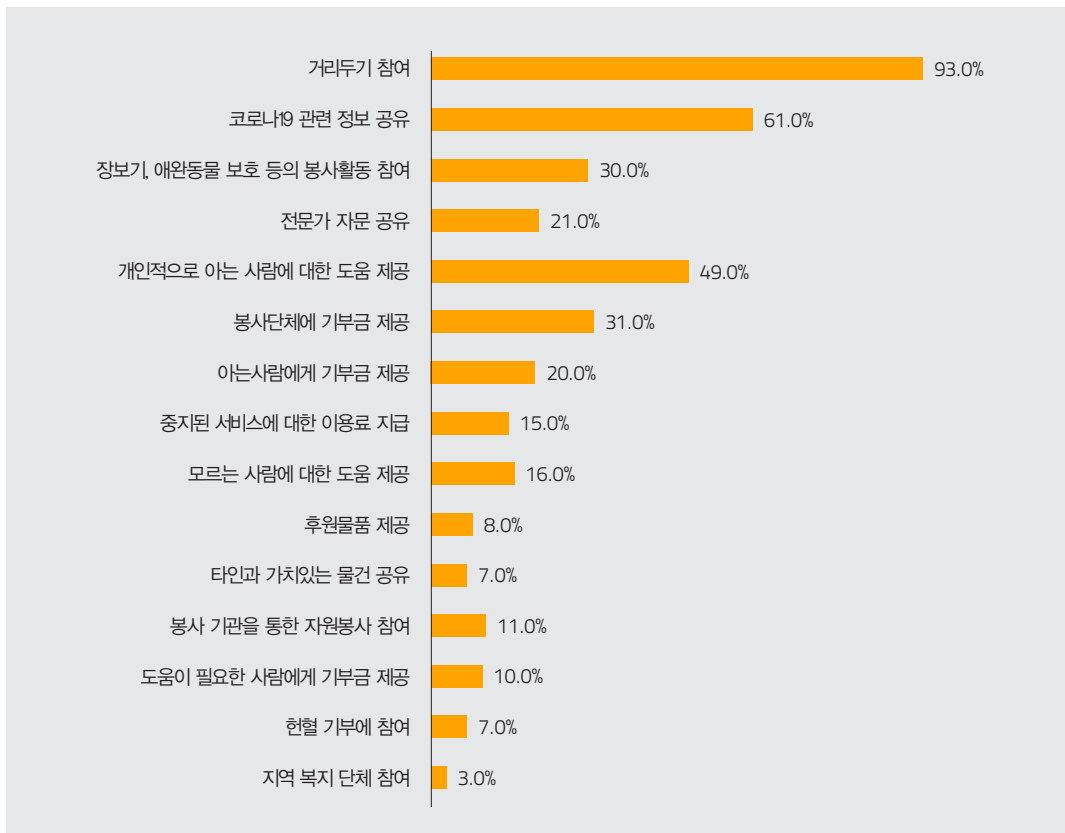
호주에서는 2020년 1월 25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3월 20일 국경 폐쇄 명령이 내려졌으며, 모든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4일 간의 격리를 의무화하였다. 조사 당시 빅토리아 주에서는 두 번째 대유행이 발생했으며, 강력한 규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였다.

[그림 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응답자의 61%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존에 제공하던 기부금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오히려 11%는 기부금액을 더 늘린 것으로 응답하였다. 자원봉사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72%의 응답자는 자원봉사 참여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는 오히려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자의 13%는 기부금을 축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17%의 응답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줄였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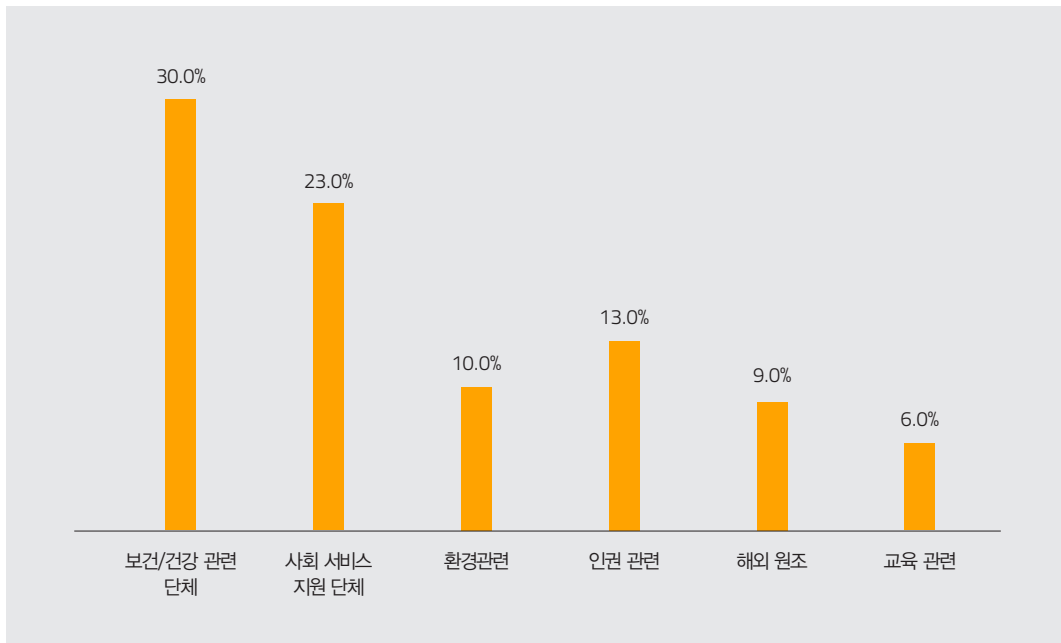
[그림 14]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 - 호주

[그림 15]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참여한 자선적 활동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93%의 응답자가 거리두기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61%의 응답자는 코로나19 관련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대해 도움을 제공하거나(49%), 아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20%)이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 제공(16%),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 제공(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봉사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경우가 31%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단된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는 전체의 1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는 혈액 기부에 참여하였으며, 2%의 응답자만이 [그림 15]에 포함된 자선적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5]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호주

[그림 16]은 기부금 지급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로서,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부자들은 보건/건강 관련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제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30%). 다음으로 사회 서비스 단체(23%), 인권 관련 단체(13%), 환경 관련 단체(10%), 해외 원조 관련 단체(9.0%), 교육 관련(6.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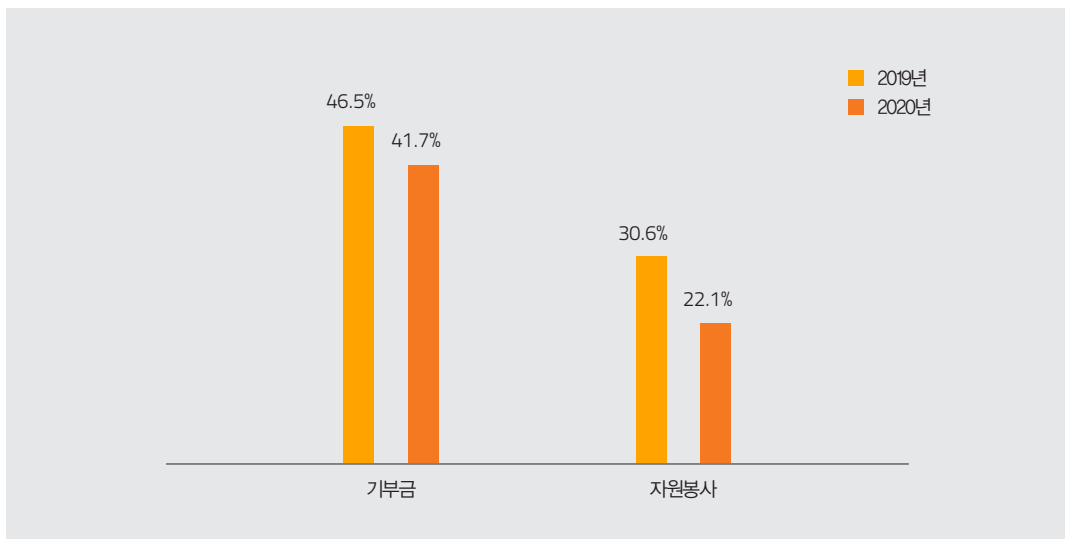
[그림 16]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호주



7)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조사는 2020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3주 동안 매주 실시되었으며, 한 주에 평균 560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최종 총 26,737명이 참여하였으며, 약 50,000건의 설문이 완료되었다. 응답자 중 약 10%는 적어도 3번 이상의 설문에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약 89%는 유대인이었고, 11%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응답자였다. 설문 조사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2020년 2월 초에 첫 번째 국경 폐쇄가 있었고, 2020년 9월에 두 번째 국경 폐쇄가 있었다.

[그림 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2월부터 9월까지 자선적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응답자의 41.7%였으며, 응답자의 평균 22.1%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기부 참여율과 자원봉사 참여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줄어든 것이다. 참고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기부 참여율은 47%, 자원봉사 참여율은 31%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기부 참여율과 자원봉사 참여율이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었으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6% vs.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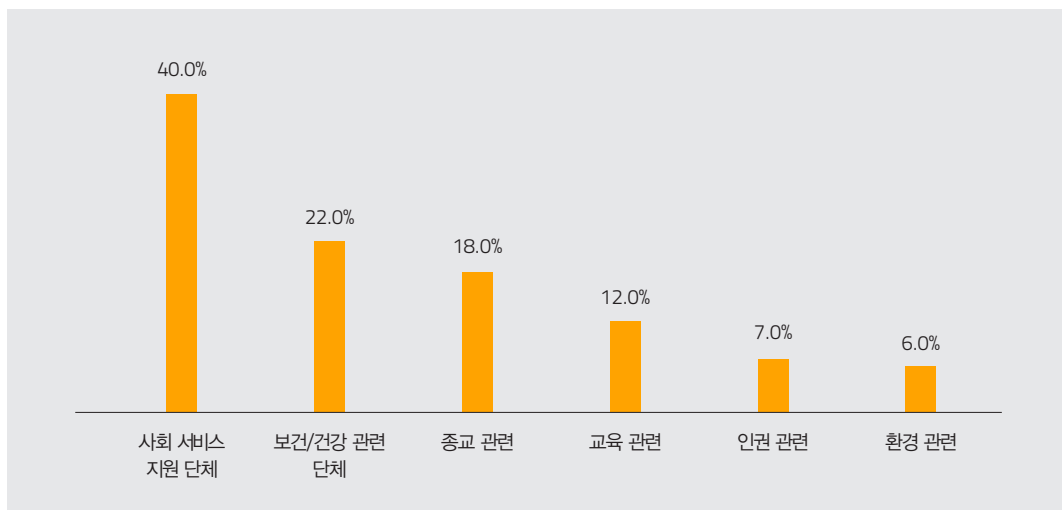


[그림 17]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 - 이스라엘

[그림 18]은 기부금 지급 분야별 분석 결과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기부한 단체는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회 서비스 단체에 대한 기부로서 응답자의 40%가 사회 서비스 단체들에 기부를 하였다. 반면 보건 및 건강 관련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는 응답자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른 유럽 국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연구자들은 기부자들이 보건 및 건강 관련 단체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기부한 원인을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코로나19 발병 초기 코로나가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생필품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정부의 생필품 및 건강 관련 물품 지원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민간의 지원 및 기부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연구에서와는 다르게 기초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가 보건 및 건강 관련 단체에 대한 기부보다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둘째, 이스라엘에서는 보건 및 건강 관련 서비스는 정부에서 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건 및 건강 관련 단체보다는 다른 목적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사회 서비스 단체 기부 및 보건/건강 관련 단체 기부 다음으로는 종교 관련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18%), 교육 관련 단체(12%), 인권 관련 단체(7%), 환경 관련 단체에 대한 기부(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이스라엘



8)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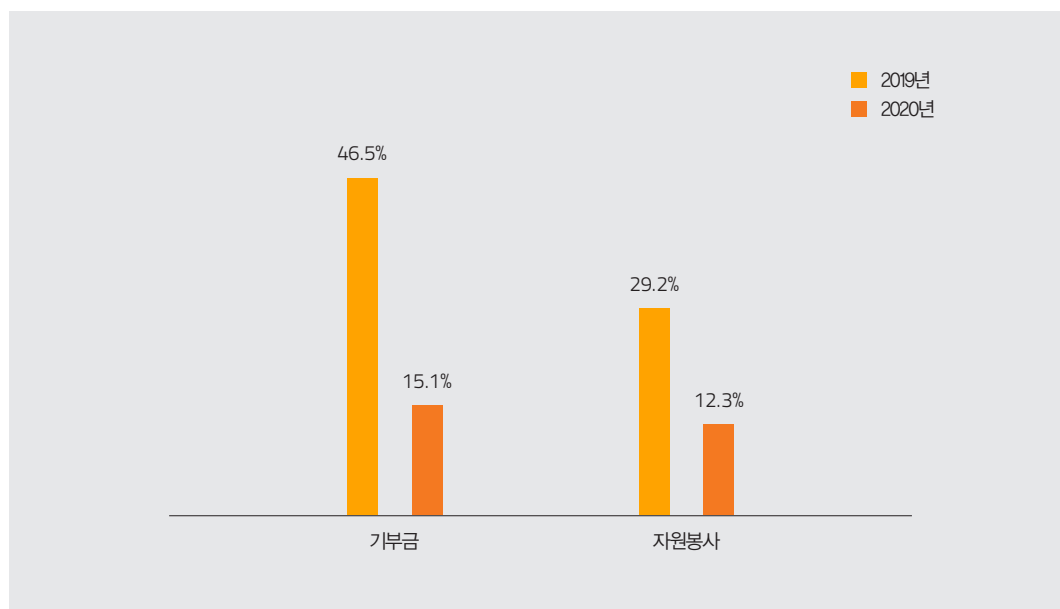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한국의 조사는 2020 기빙코리아 조사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12일~8월 21일 사이에 설문이 진행되었다. 2020 기빙코리아 조사에는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총 2,006명이 참여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여성 50.3%(1,010명), 남성이 49.7%(9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른 구별은 기혼자 61.8%, 싱글 30.1%, 사별 및 이혼자 8.1%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최초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몇 번의 대유행을 경험하였으며, 본 연구의 설문이 진행될 당시 한국에서는 두 번째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한국 정부는 “3T” 정책(검사, 추적, 치료)을 강력히 시행하던 시기였으며, 거리두기 정책과 집합 금지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에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림 19]와 같이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기부에 참여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5.1%로 2019년 기부 참여율(46.5%)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율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발병 이후에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12.3%만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조사 시기가 첫 번째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고 연이어서 두 번째 대유행이 시작된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개인적 활동이 매우 위축된 시기였기도 하고, 기부 및 봉사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겨울 이전의 조사이기 때문에 코로나19발생 이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도 조사는 1년 간의 기부 참여율이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조사는 반 년 간의 기부 활동에 대한 조사이므로, 상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 김성주 외(2022)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ARS, 온라인 기부(예, crowdfunding, Peer-to-peer donation), 팬텀 기부 등 다양한 기부 방식을 통한 기부가 지난 5년 간의 기부 추세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Kim et al.,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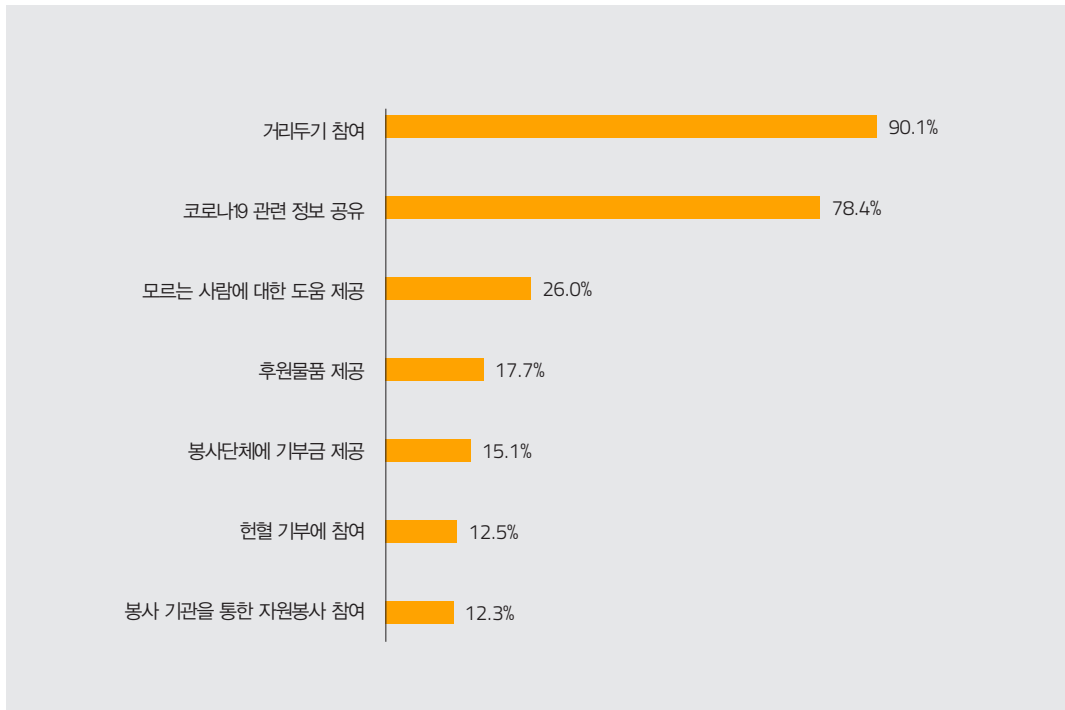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의 변화에 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0.8%가 기부 행위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코로나 이전과 같거나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53.2%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기부에 참여하던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더라도 기존의 기부금 제공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것이며, 또한 지금은 기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기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도 전체의 41.7%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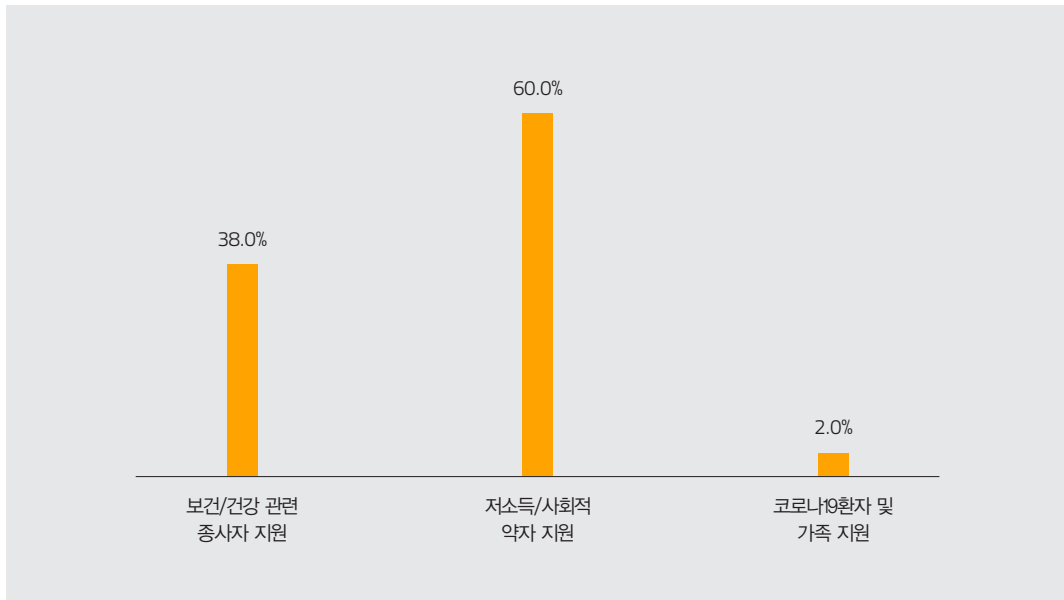
[그림 20]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참여한 자선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응답자의 90%가 거리 두기에 참여하였으며, 78.4%의 응답자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26%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17.7%의 응답자는 후원물품을 제공하였다. 봉사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응답자는 전체의 15.1%였으며, 혈액 기부에 참여한 사람도 전체의 12.5%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발병 이후 봉사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응답자는 전체의 12.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0]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한국

[그림 21]은 코로나19 이후 지급된 기부금 지급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로서, 응답자의 60%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저소득 가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금 지원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스라엘 연구 결과와 비슷한 현상으로 한국의 기부자는 보건 및 건강 관련 지원 단체에 대한 기부보다는 저소득 가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 및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일선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도 집중되었는데, 응답자의 38%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제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코로나19 환자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지급 분야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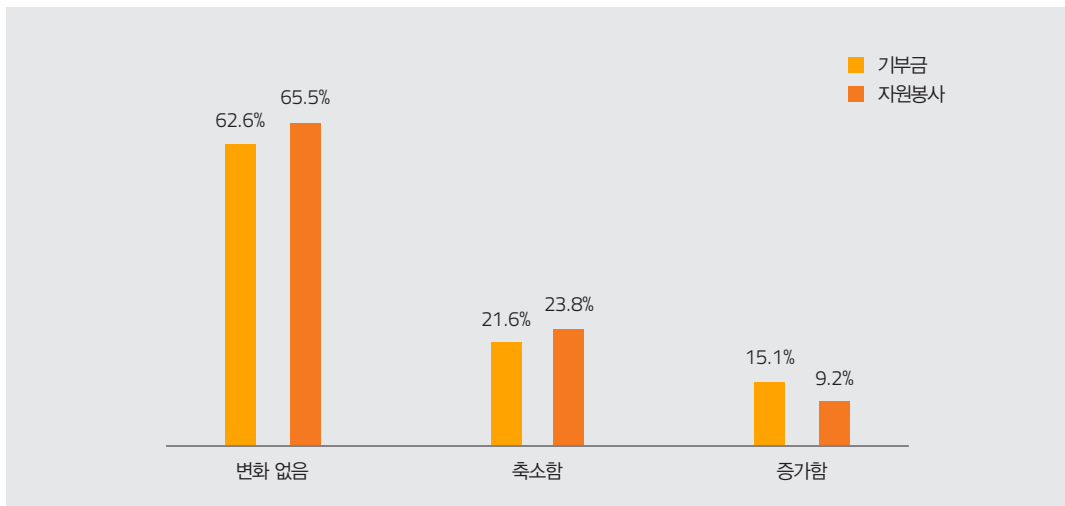


9) 미국

미국의 연구는 시카고 대학의NORC 연구 센터 주최로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미국 전역 18세 이상 95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응답자는 1,535명으로 49%가 남성 응답자였으며, 51%가 여성 응답자였다. 응답자의 49.3%가 싱글이었으며, 29.3%가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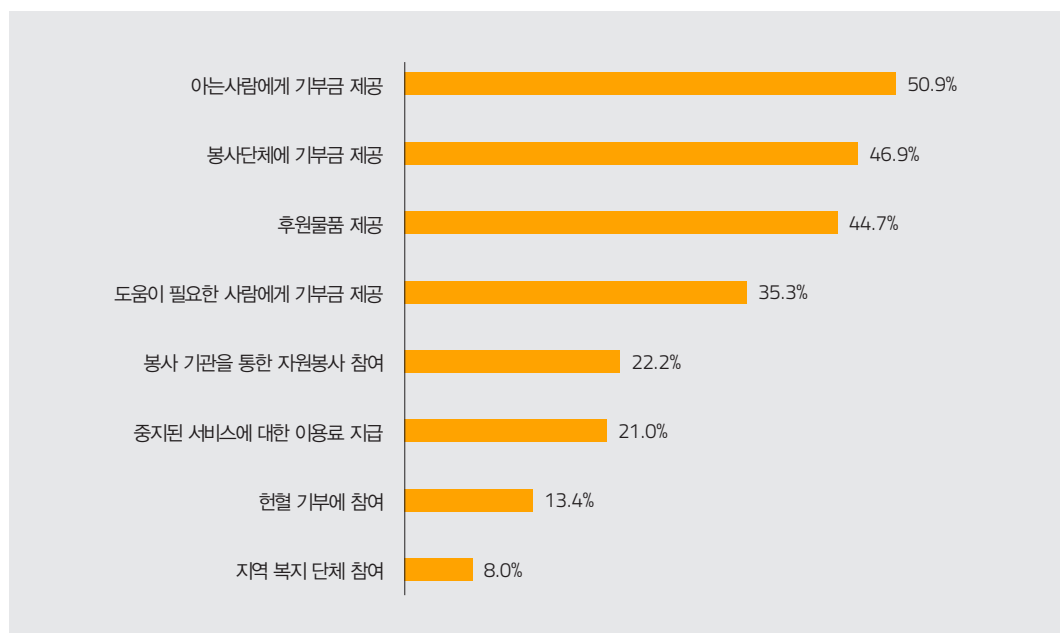
미국 연구가 진행될 당시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으며, 많은 주에서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 및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어떤 주에서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던 시기였다.

[그림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응답자의 62.6%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기부금 제공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5%는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을 축소한 응답자는 전체의 21.6%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 참여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변화가 없다(65.5%)’, ‘증가하였다(9.2%)’, ‘축소하였다(23.8%)’로 자원봉사를 축소한 경우가 기부를 축소한 경우보다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코로나19로 인한 기부금 및 자원봉사 참여 변화 - 미국

[그림 23]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응답자가 참여한 자선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응답자의 50.9%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아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였으며, 46.9%는 봉사 단체를 통하여 기부금을 제공하였고, 응답자의 44.7%는 봉사 단체에 후원물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35.3%는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였고, 22.2%의 응답자는 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유료 서비스에 계속해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1%였고, 혈액 기부에 참여한 경우는 전체의 13.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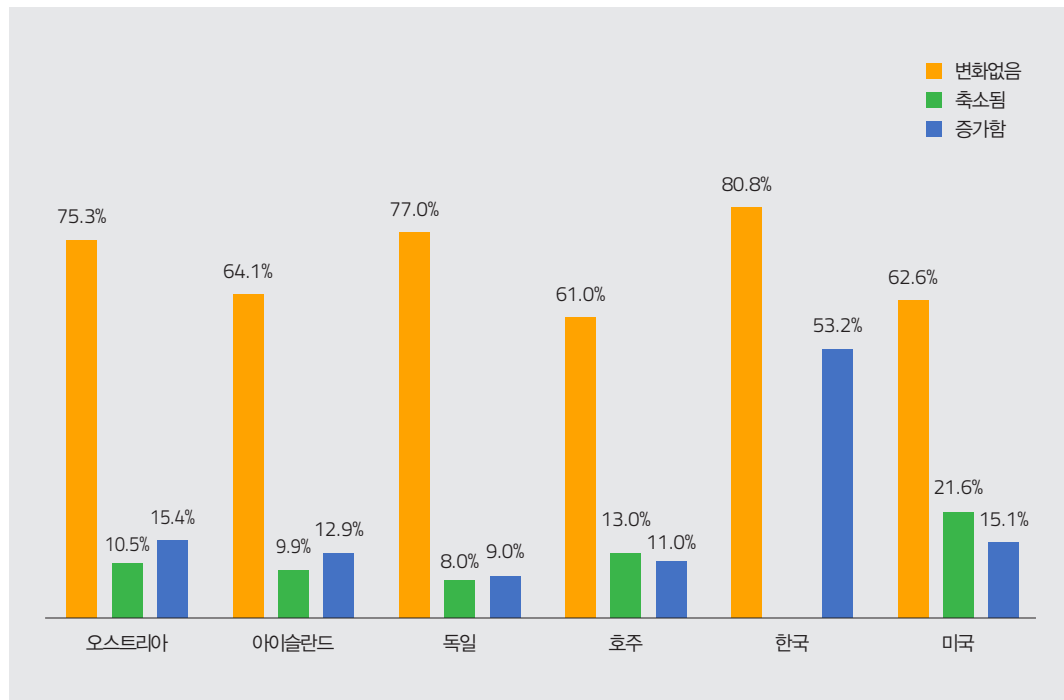
[그림 23] 코로나19 관련 자선 활동의 참여 - 미국

2. 코로나19 이후 기부 및 봉사 활동 변화에 관한 국제 비교

본 섹션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선적 활동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간 비교 분석 결과를 서술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 앞서 각 국가의 연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 간 비교 분석 결과의 통계적 해석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단순 수치상의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간 기부 행위의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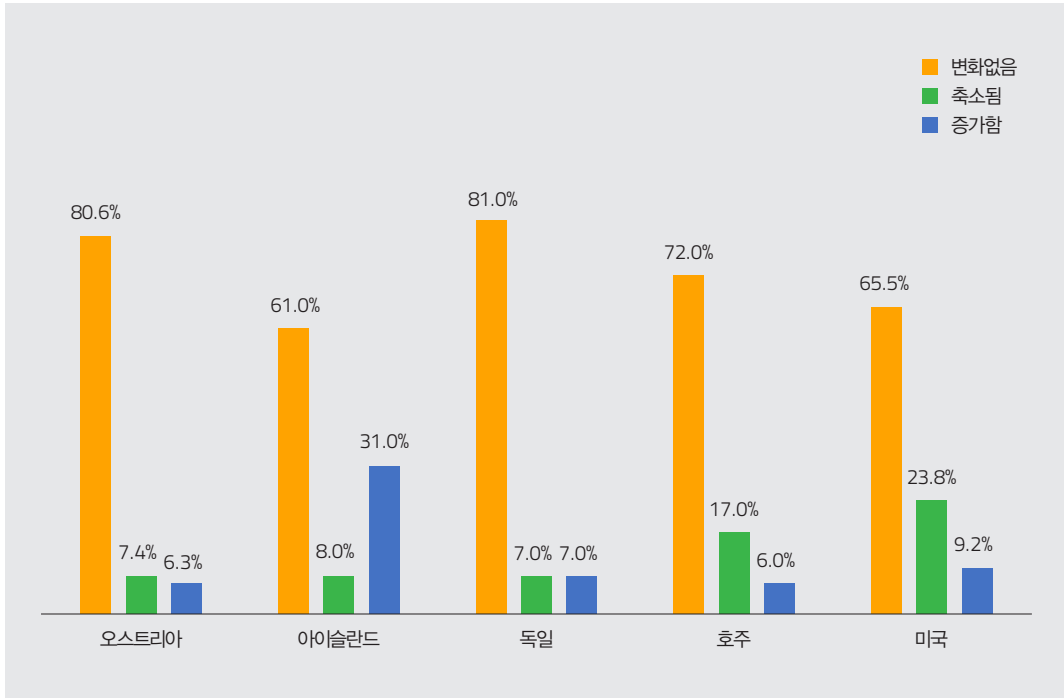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존에 제공하던 기부의 변화에 관한 조사에서는 [그림 24]에서 보듯이 설문 에 참여한 9개국에서 높은 수준에서 기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부의 변화가 가장 많은 나라는 호주, 미국 순이었다. 특히 한국은 기부 변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기존 기부자의 80%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기부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를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응답한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시 기부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서도 이러한 기부 문화가 적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 IMF 금모으기 운동,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돕기 기부 참여, 2019년 고성 산불 돕기 기부 캠페인 등 국내·외적으로 각종 자연 재해 및 경제적 재난이 발생하였을 시 한국인들이 보여준 기부에 참여하는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는 재난 기부와 조금 다른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도 한국민들의 기부 참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기부 유지율과 기부 증가율의 결과는 설문 조사 방법상의 차이인지 실제로 기부를 유지한 비율과 증가 비율이 높은 것인지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자선적 행위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비교 분석 결과의 해석상 주의가 꼭 필요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를 축소하였다는 비율이 21.6%로 다른 나라(평균 11%)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며, 기부를 늘렸다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 참여 변화 추이 국가 간 비교

[그림 25]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것으로 비교 대상에 포함된 5개 나라 모두 60% 이상의 응답자가 자원봉사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응답자의 81%가 이에 해당된다. 아이슬란드는 자원봉사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 대상 5개 국가 중 가장 낮았으나(61%),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개 나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반면 자원봉사를 축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23.8%이며,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호주(17%)였다. 유럽 국가들은 7.5% 수준의 자원봉사 활동의 축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의 변화에 관한 설문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에서는 봉사기관을 통한 자원봉사는 현격히 줄었으나, 온라인 봉사 참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법래 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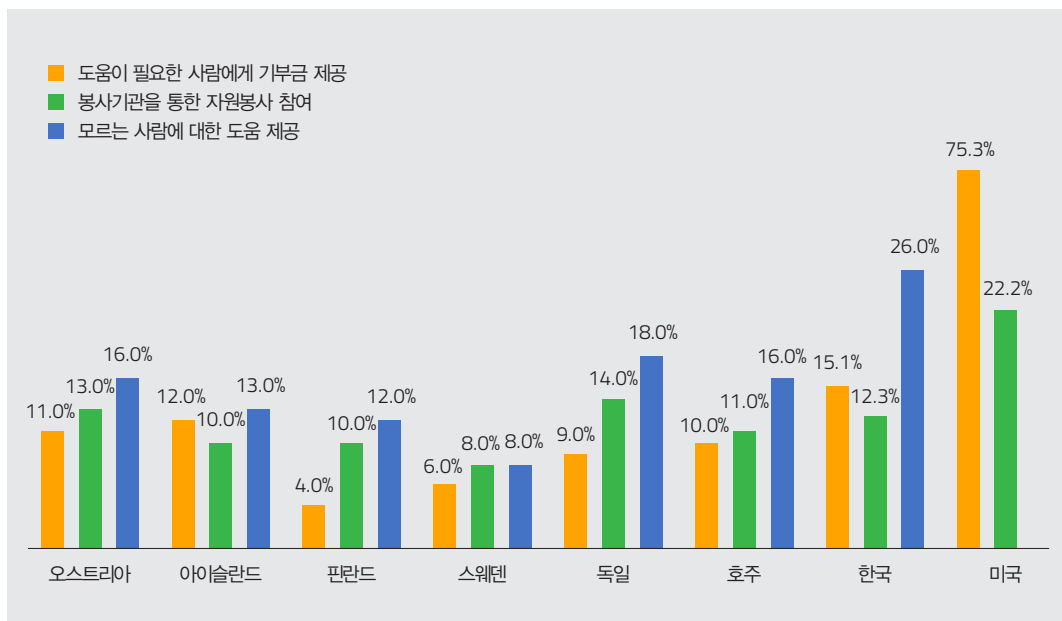
[그림 25]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 참여 변화 추이 국가 간 비교

[그림 26]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선적 활동 참여에 관한 국제 비교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한국이 다른 8개 국가보다 모르는 사람에 대해 도움을 제공한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는 기존의 연구와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 세계기부지수를 발표하는 영국의 연구기관인 Charity Aid Foundation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 한국의 기부 지수가 다른 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주요 요인 중 특히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가 비교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기 때문이다(CAF,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가 재난 상황 시 한국민들의 자선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집중되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알지 못하는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서도, 미국(35.3%)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참여율

(15.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원봉사의 참여 방식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 기존의 방식은 비영리 단체 등 봉사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조사 대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적 네트워크 또는 SNS를 통해 자원봉사 대상을 찾고 봉사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유럽 국가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유럽 국가들에서는 강력한 폐쇄 조치로 인해 비영리 단체도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고, 개인이 온라인 네트워크 및 앱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봉사 활동 대상을 찾고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봉사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는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의 경우 비영리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는 응답자의 4%밖에 되지 않았으며,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11%를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봉사 단체를 통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 높았는데,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할 대상을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 사회 통제를 하지 않은 한국에서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영리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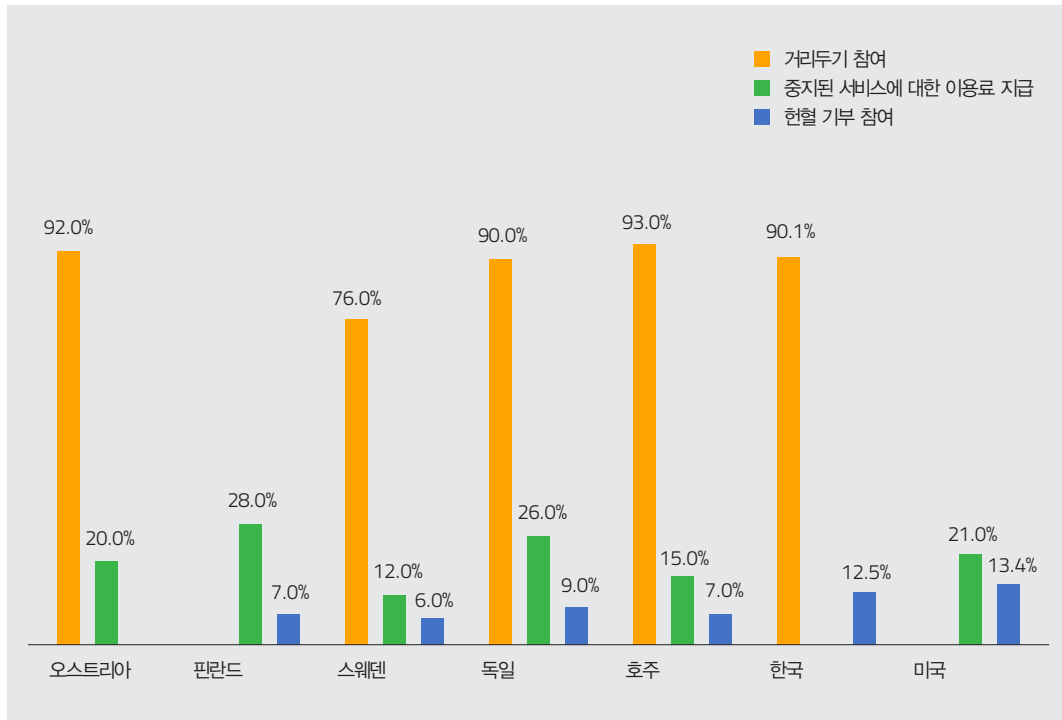


[그림 26]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선적 활동 참여 국제 비교 (1)

[그림 27]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선적 활동 참여에 관한 국제 비교 중 거리두기 참여, 혈액 기부, 중지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 참여 등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90% 이상의 응답자가 거리두기에 참여하였으나, 스웨덴에서는 76%의 응답자만이 거리두기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거리두기 정책을 강제로 실시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참여한 자선적 활동 중 특이한 사항은 유료로 사용하던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계속 지불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핀란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단된 유료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였으며(28%), 다음으로 독일(26%), 미국(21%), 오스트리아(20%), 호주(15%), 스웨덴(1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사에서는 이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중단된 유료 서비스에 이용 대금을 계속 지불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혈액 기부에 참여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미국과 비슷한 12.5%의 혈액 기부 참여율을 보였다. 한국에서 혈액 기부는 전통적인 기부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을 수 있고, 코로나19 발병 이후 헌혈 부족을 호소하는 보도가 혈액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하였으며, 중·고등학생들의 혈액 기부가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혈액 기부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역 군인들의 혈액 기부가 더욱 활발이 이루어졌으며, 헌혈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하철 역 인근, 번화가, 도심 여러 곳에 마련되어 혈액 기부를 위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환경도 한국에서 혈액 기부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7]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선적 활동 참여 국제 비교 (2)

V. 결론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심각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위협을 초래하였고, 범국가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특히 각국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기부 및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기부 금액이 늘어났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노연희, 2020).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 시기 기부 트렌드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트렌드를 비교 분석하는 국제 비교 연구는 시행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기부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기부 트렌드를 파악하고 각 나라의 트렌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코로나19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 트렌드를 국제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6월~12월 사이에 총 15개 나라에서 실시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변화에 대한 국제 자선 행동에 관한 연구팀(Global Generosity Research Team)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9개 나라의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과 각국의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인용된 나라에는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독일, 호주, 이스라엘, 한국, 미국이 포함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국제 비교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참여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을 포함한 유럽 및 호주의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평균 65%(61%~77%)가 코로나19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한국의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1%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존에 제공하던 기부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독일(77%), 오스트리아(75.3%)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미국(62.6%)이나 호주(61%)보다도 약 1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를 더 늘린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독일 등 유럽 국가는 응답자의 9%~15% 사이에서 기부금을

늘렸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응답자의 53%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이 평소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은 본 연구의 비교 대상에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기부에 적극 참여하는 한국 기부 문화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기부자들은 더욱 적극적인 기부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르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22%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두 번째로 높은 독일(16%)보다도 6%나 높은 수치이며, 최저 수준을 나타낸 스웨덴(8%)보다는 무려 1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자선 행위의 증가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밖에 봉사 기관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비율도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혈액 기부 참여 비율은 미국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리두기 참여도 미국 및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중 특이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지급은 한국에서는 설문되지 않았지만 미국 및 유럽에서는 7%~13%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유료 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계속 지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리두기, 집합 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새로운 방식의 자원봉사 참여가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자원봉사 참여는 비영리단체 등 기관을 통해 봉사할 대상과 장소를 찾았다고 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자원봉사 대상과 장소를 찾고, 개인 네트워크 또는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장보기, 애완동물 돌보기, 가족/친구 또는 모르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비영리단체 등 자원봉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봉사할 대상을 찾고 SNS 등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다른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노법래 외, 2022).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에 관한 국제 비교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 및 유럽 국가의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참여도에 비해 기존의 기부행동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르는 사람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혈액 기부에 참여한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부 및 자원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국가 간 상대 비교 결과는 각 나라의 연구 방법의 차이 및 통계적 한계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가 국제적 맥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인지를 위한 비교 자료만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VI. 참고문헌

- Abidin, Z. (2021). Islamic Philanthropy and Covid-19 Pandemic Crisis: The Socio-Economic Role of Nahdhatul Ulama, al-Uqud: Journal of Islamic Economics, 5(1), 166-183.
- Adelabu, O. (2021). The Resurgence of Corporate Philanthropy in Nigeria: A Study of CACOVID and COVID-19.
- Barr, N. (2021). Charitable Giving in the Time of COVID-19. Community Ideas Factory: Creative Behavioural Insights, 1. https://source.sheridancollege.ca/fhass_community_ideas_factory_cbi/1
- Charity Aid Foundation (2019, October). CAF world giving index: Ten years of giving trends. https://www.cafonline.org/docs/default-source/about-us-publications/caf_wgi_10th_edition_report_2712a_web_101019.pdf
- Charity Aid Foundation (2020, October). UK giving and COVID-19: A special report. <https://www.cafonline.org/docs/default-source/about-us-publications/caf-uk-giving-2020-covid-19.pdf>
- Fridman, A., Gershon, R., & Gneezy, A. (2022). Increased generosity under COVID-19 threat. Scientific reports, 12(1), 1-8.
- Fridman, A., Gershon, R., & Gneezy, A. (2022). Increased generosity under COVID-19 threat. Scientific reports, 12(1), 1-8.
- Gulliver-Gracia, T., Kumar, S., & Sato, G. (2022, May 25). Philanthropy and COVID-19: Examining two years of giving. <https://candid.issuelab.org/resource/philanthropy-and-covid-19-examining-two-years-of-giving>
- Kim, S. J., & Jang, Y. J., & Lee, Y. L. (2022, June). Digital for good: A global study on emerging ways of giving- South Korea.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https://scholarworks.iupui.edu/bitstream/handle/1805/29310/SouthKoreaReportEnglish2022.pdf>

-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1, November). Understanding philanthropy in times of crisis: The role of giving back during COVID-19. <https://scholarworks.iupui.edu/bitstream/handle/1805/26934/philanthropy-crisis-nov21.pdf>
- Paarlberg, A., Bergdoll, J., Houston, P., & Kou, X. (2021). Understanding Philanthropy in Times of Crisis: The Role of Giving Back During COVID-19. <https://scholarworks.iupui.edu/handle/1805/26934>
- Venkatachalam, P., Yeh, D., & Memon, N. (2020). Philanthropy and the COVID-19 Response in India. Bridgespan's Mumbai office. <https://www.bridgespan.org/insights/library/philanthropy/philanthropy-covid-19-response-in-india>
- Zaki, J. (2020). Catastrophe compassion: Understanding and extending prosociality under crisi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4(8), 587-589.
- 고재원 (2021, February 23). 부자나라가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 WHO 코백스 물량 부족사태 우려. 동아시아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4204>
- 노연희 (2020).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일반시민의 기부행동 분석. *NGO 연구*, 15(3), 1-30.
- 노법래, 정진경, 최권호, 이민영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자원봉사활동 변화의 실제-온리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시계열적 추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1), 133-155.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22년 기획연구 보고서



비매품/무료



9 788993 842562

ISBN 978-89-93842-56-2